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FAMILY DAY

가족의 발견

2018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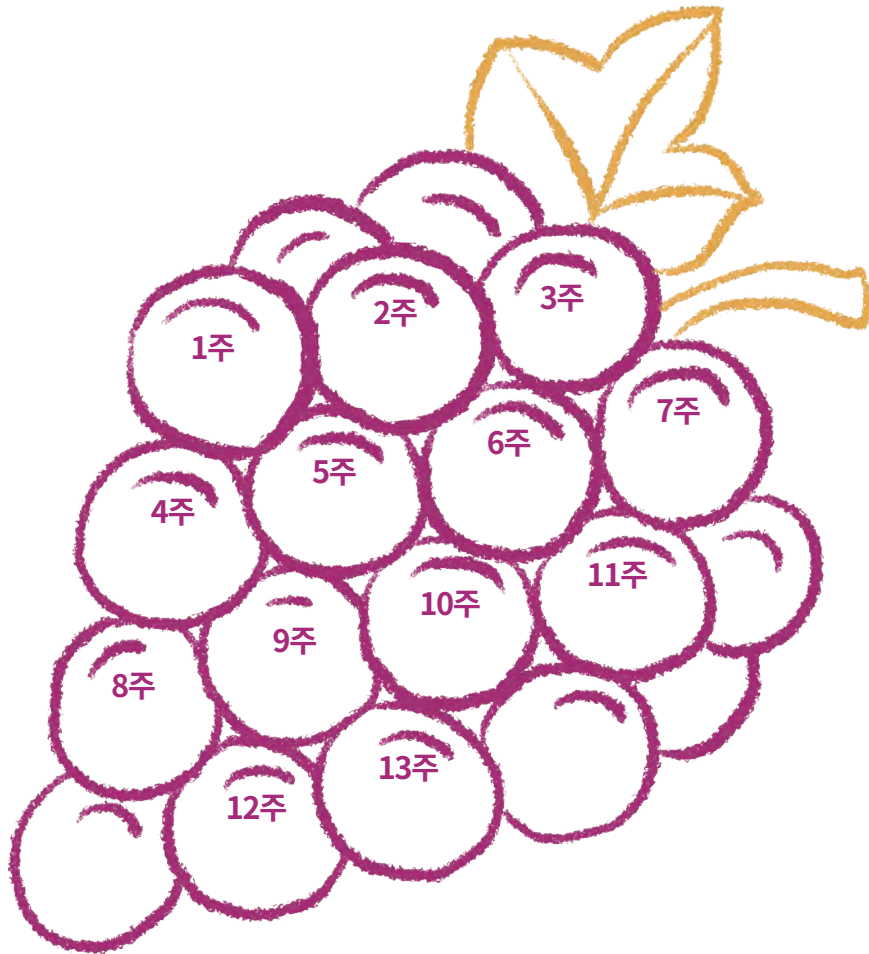
가정예배 자료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가정예배 포도나무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고,
포도나무를 하나씩 색칠해보세요!



7-9월 세 달 동안 가정예배를 8회 이상 드리신 가정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정예배 포도나무’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일시 9월 30일(주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장소 베다니광장 가정예배자료집 배부처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7·8·9월호 소개 - "가족의 발견 그리고 그 와중에도..."	06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9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07.01 ~ 07.07	부부, 하나가 되다	12
2주	07.08 ~ 07.14	부부, 사랑의 관계	14
3주	07.15 ~ 07.21	부부로의 만남	16
4주	07.22 ~ 07.28	홀로 되었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롯	18
5주	07.29 ~ 08.04	새 생명, 자녀를 품는 감격	24
6주	08.05 ~ 08.11	하나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하는 캠프	26
7주	08.12 ~ 08.18	'한 가족'으로 부르심	28
8주	08.19 ~ 08.25	'나의 자녀'를 넘어 '우리의 자녀'로	30
9주	08.26 ~ 09.01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36
10주	09.02 ~ 09.08	믿음의 가정, 그 시작의 역사	38
11주	09.09 ~ 09.15	가정 안에서 은혜의 사건	40
12주	09.16 ~ 09.22	믿음의 가정, 그 복된 모습	42
13주	09.23 ~ 09.29	예수님의 가족은?	44

교육부 주요활동	48
----------	----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 133:3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의 발견 그리고 그 와중에도...

7-9월호를 시작하며..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시편 128:3 **

7-9월의 시간은 매우 뜨거운 계절입니다. 아이들의 방학 등으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여행을 하는 등 가족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도 더 많습니다. 이때에, 그 동안 다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들이 몰랐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우리 가족과 가문의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그렇게 아이들과도 더 살갑게 지내면서 그 한 가운데 ‘가정의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족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만나고, 그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하여 금번 가정예배책자는 여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족의 발견’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 만남의 은혜 (7월) >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여 가정과 교회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시작되었듯이 가정도 “만남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의 주선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홀로 살아가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아담의 사랑고백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 창세기 2:23 **

믿음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 “만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부부를 하나로 만나게 하셨던 때의 이야기와 은혜를 되새겨 보고, 부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만남과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와중에도, 우리는 “부부의 만남”과는 달리 ‘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한 주라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족의 발견 그리고 그 와중에도..."

< "새 생명"의 은혜와 감격 (8월) >

교회와 가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듯이, 믿음의 가정도 부부의 사랑 가운데 “새 생명”인 자녀를 품고 낳게 됩니다.

특별히 8월은 아이들이 방학으로 보내는 때입니다. 집에서 또는 휴가의 시간에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서 부모 됨의 무게를 잠시 벗고 ‘나와 자녀들이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확인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지 함께 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와중에도, ‘나의 자녀’만을 위하는 마음을 더 넓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인 다음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마음과 인생의 지평도 함께 넓히실 것입니다.

< "가족의 발견" (9월) >

교회와 가정이 갖는 또 다른 공통점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듯이 가정에도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9월은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함께 나눔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가문이 처음 믿음의 가정이 된 이야기를 되새겨 보고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더불어 세상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중요했던 가족의 사건과 은혜의 역사를 되새기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믿음의 가정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와중에도, 나의 가족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내 가족 중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시대 다양한 가정들을 이해하고 품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시편 128:1-3 **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창세기 2:18-25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7 July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E B/D# C#m E/B A E/G# F#m B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5 E B/D# C#m E/B A A/B E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

9 E B/D# C#m E/B A E/G# F#m B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13 E B/D# C#m E/B A B7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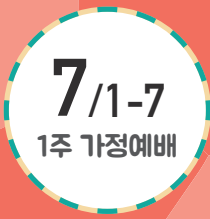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17 B7 E B7 E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21 C#m A F#m B E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



부부, 하나가 되다

창세기 2:18-25



이달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1p



말씀읽기 - 창세기 2:18-25

18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도우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 Q2. 부부는 생명을 나눈 소중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며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말씀듣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곳곳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혼자 두시지 않고 그와 함께 할 사람을 계획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자세히 바라보며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 각각 짝이 있으나, 나와 함께할 존재는 없구나.’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뼈에서 피가 생겨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뼈는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하지 못하며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함께할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를 ‘돕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나눈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8-14

2주 가정예배

부부, 사랑의 관계

에베소서 5:22-28



이달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1p



말씀읽기 - 에베소서 5:22-28

-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 Q1. 본문을 통해 봤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일까요? 자신의 말로 대답해 봅시다.
- Q2.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말씀듣기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본문은 그중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특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모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32절}

먼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모델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귀히 여기시며,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의 모델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질서 가운데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교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결코 강압적이거나 기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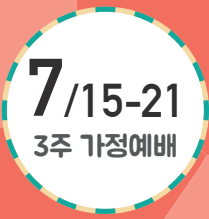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부부로의 만남

창세기 24:10-20



이달의 찬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11p



말씀읽기 - 창세기 24:10-20

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꿰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생각하기

- Q1. 우리 부부의 만남을 위해 어떤 이들의 기도가 있었는지, 또는 있었을지 나눠보고 생각해봅시다.
- Q2. 이 귀한 기도들의 열매로 예비하신 만남을 가꾸어 가는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만남의 열매인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 Q3. 자녀들에게 부모가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말씀듣기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택하여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종은 먼 길을 떠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아는 종이 주인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아브라함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최고의 지혜와 판단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기도합니다. 결국 종의 간절한 기도는 끝나기도 전에 간구하였던 두 가지 조건에 딱 맞는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즉시 응답 받습니다. 그 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이후의 삶은 종의 기도처럼 ‘순조롭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쌍의 부부가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많은 이들의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그 열매인 자녀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기도응답이자 최고의 축복임을 새삼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이어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부부가 만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첫 열매로 주신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홀로 되었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롯

룻기 1:11-18



이달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1p



말씀읽기 - 룻기 1:11-18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좃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의 은혜는 누구일까 생각해봅시다.
- Q2.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만남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만남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남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말씀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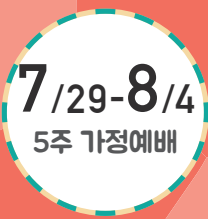
"나만 혼자 남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과부와 외국인으로 남겨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두 아들과 결혼했던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나갔지만, 룻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룻 역시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룻의 믿음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은 다른 나라이지만, 룻에게는 고향입니다. 그런데 룻은 부모^{2:11}와 고향과 종교를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외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모압의 종교를 포기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졌어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룻에게 더욱 특별한 만남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4:13-22}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만남의 은혜가 되어,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새 생명, 자녀를 품는 감격

창세기 21:1-8



이달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1p



말씀읽기 - 창세기 21:1-8

- 0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 0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 0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 0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 0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 0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 0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령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 0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생각하기

- Q1. 우리 가정에도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기다리는 기도제목이 있나요? 함께 나눠봅시다.
- Q2. 아직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보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축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말씀듣기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그 약속은 깜깜무소식이고,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아내 사라 사이에 자녀를 줄 것이며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창17:16. 아브라함은 속으로 “100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하나님은 말씀하신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사내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신들의 가정에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 하여 태어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저 웃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웃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 자녀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실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August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 주 안에 우린 하나



8/5-11

1주 가정예배

하나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하는 캠프

레위기 23:33-43



이달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25p



말씀읽기 - 레위기 23:33-43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35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7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38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1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어서 가족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갑시다.
- Q2.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부모님과 자녀가 특별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감을 나눠봅시다.



말씀듣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행동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각각의 가족들이 나뭇가지나 풀을 이용하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야외에서 캠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항상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일주일동안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함께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변함없이 우리 가족을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무더운 여름, 가족과 함께 휴가나 여행을 가질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한 가족'으로 부르심

에베소서 4:1-6



이달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25p



말씀읽기 - 에베소서 4:1-6

- 0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0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0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0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 0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 0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생각하기

- Q1. 에베소 교회의 분열의 모습들 서로 다투며 깨어져있었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시다.
- Q2.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겸손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족구성원간에 소홀하고
상처를 준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더 사랑해주리라 결단해봅시다.



말씀듣기

에베소교회의 어려움은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서로 거짓을 말했고, 분열에 휩싸여 성도들 간에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며칠씩 생각하며 풀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 하는 것이고, 동료 신자들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겸손이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온유함이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용납하는 관용 등입니다. 결국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가족 구성원간에 사랑으로 더 존중하며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가정으로 서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기도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때로는 무례하게 함부로 사랑 없이 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나의 자녀'를 넘어 '우리의 자녀'로

느헤미야 5:1-13



이달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25p



말씀읽기 - 느헤미야 5:1-13

01 그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02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가 하겠다 하고 03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04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05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
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
다 하더라 06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07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처서 08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
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
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09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
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 나와 내 형제와 종
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 그런즉 너희
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
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
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
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
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생각하기

- Q1.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자녀만 돌보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우리'의 자녀는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 Q2. 느헤미야의 꾸짖음으로 귀족들과 관리들은 이자 받기를 그치고, 자신의 것을 동족을 위해
나누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의 자녀들, 이웃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듣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을 하던 중, 산발랏과 도비야 라는 인물들이 방해합니다.⁴장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겨우 문제를 해결할 때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같은 유대민족끼리의 갈등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양식도 넉넉지 않아 자녀들이 굶고 밭과 포도원을 빗내서 세금을 바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

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고 크게 화가 납니다. 먼저는 그들의 불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해보니' 그 원인은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고, 동족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법에 어긋난 행동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것은 '나'만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안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고, 이자 받기를 그치게 하고, 같은 민족인 '형제'들을 돌보게 합니다.



기도

하나님, 더 넓은 사랑의 지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자녀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도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8/26-9/1

4주 가정예배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신명기 6:1-7



이달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25p



말씀읽기 - 신명기 6:1-7

0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0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0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
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0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
호와이시니 0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0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0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생각하기

- Q1.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의 경험들을, 특별히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에게 나눠봅시다.
- Q2.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여 축복받기 위해 우리 가정은 성경을
어떻게 얼마나 읽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고, 앞으로 더 깊은 묵상을 나누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 해봅시다.



말씀듣기

앞서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언뜻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약속된 계명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4·5절}. 특별히 모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온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 부모는 먼저 본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6·7절}.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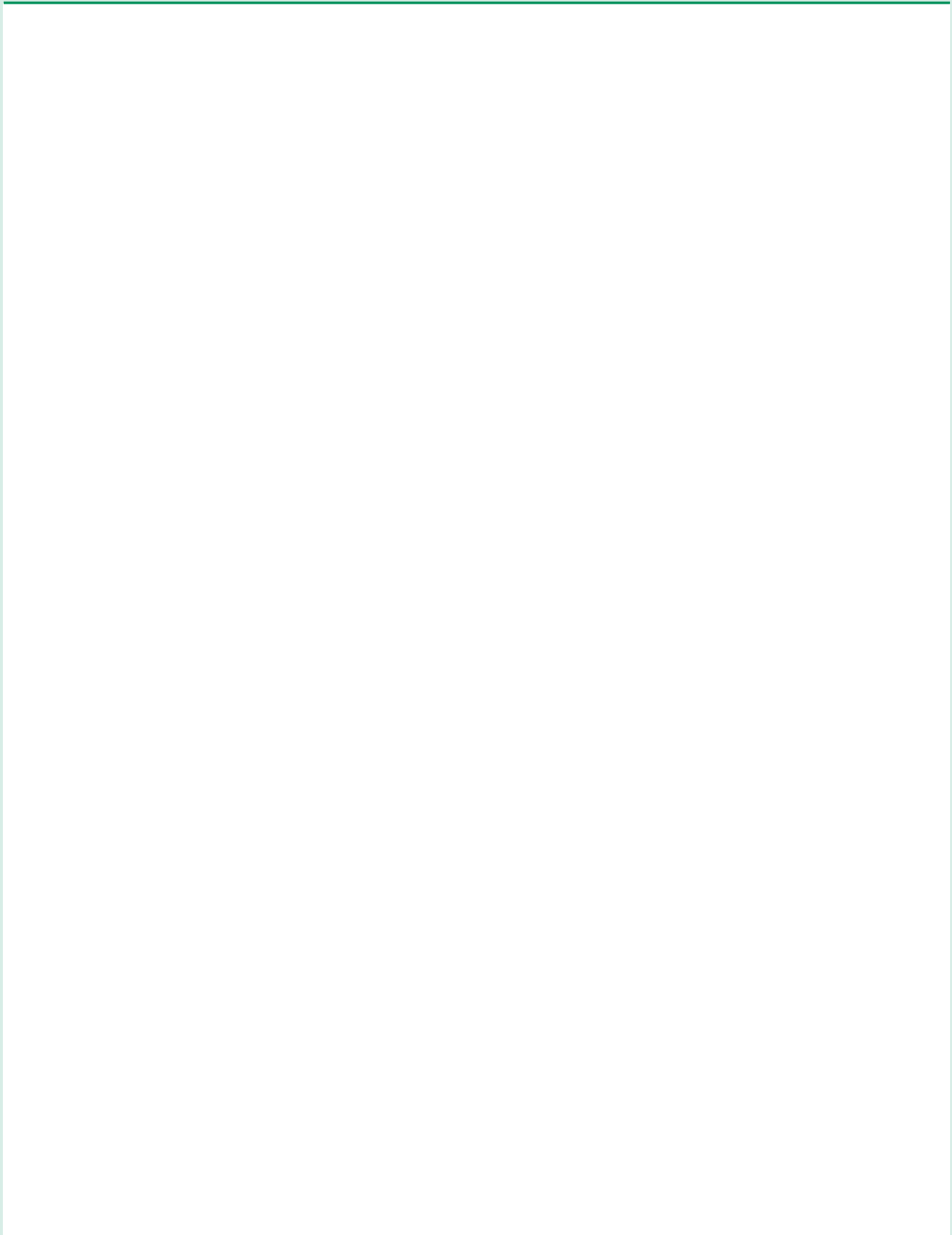
기도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겨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길 소원합니다.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Septem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추석

대체 휴일

30

이달의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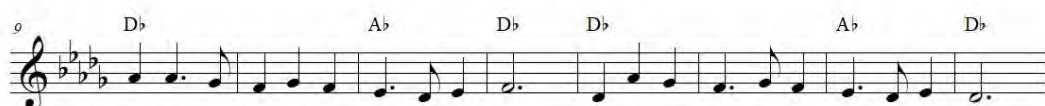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니 아버지 모셨으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쳐있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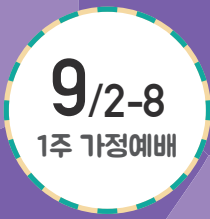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믿음의 가정, 그 시작의 역사

시편 136:10-16



이달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37p



말씀읽기 - 시편 136:10-16

-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2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생각하기

- Q1. 오늘까지 우리 가정의 믿음이 이어지게 된 뿌리경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 Q2.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써봅시다.



말씀듣기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괴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홍해 바다 앞에서는 큰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무사히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뜨겁고, 척박한 광야의 길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애굽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의 “뿌리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9/9-15

2주 가정예배

가정 안에서 은혜의 사건

창세기 46:28-34



이달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37p



말씀읽기 - 창세기 46:28-34

-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 31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 32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 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생각하기

- Q1.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 Q2. 우리 가정이 경험했던(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까?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말씀듣기

요셉을 잃어버린 후, 야곱 가정은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창 37:35는 말을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형제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동생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차마 아버지께 말하지 못해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서로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가진 채로 살게 되었고, 야곱 가정은 슬픔, 원망, 죄책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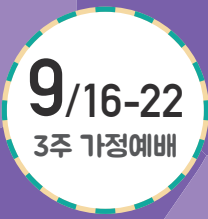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야곱 가정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건강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왔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얼싸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여전히 걱정가운데 있던 형제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었습니다. 슬픔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야곱 가정은 새롭게 변했습니다. 슬픔과 상처들이 기쁨과 회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믿음의 가정, 그 복된 모습

시편 128:1-6



이달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37p



말씀읽기 - 시편 128:1-6

- 0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0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0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0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0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0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생각하기

- Q1. 시편 128편 말씀이 말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과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 중 닮은 모습을 찾아 이야기해보세요.
- Q2.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실천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듣기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며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8편 속에 이에 대한 정답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1절}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또 믿음의 가정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2절} 시편의 저자는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새번역) 라고 말합니다. 힘써 일하고 수고에 따라 복과 은혜를 받아 온 가족이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함께 모여 수고한 가족 모두를 격려하고 토닥이는 사랑의 가정입니다.^{3절} 풍요와 축복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수고한 만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게 복을 주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보며 오래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5-6절}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가족은?

마태복음 12:46-50



이달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12:46-50

-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생각하기

- Q1.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변의 '하늘가족'을 잘 품고
사랑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 Q2. 예수님께서서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켜 제자공동체의 지체들까지 '형제와 자매'로
부르십니다. 우리 가정들이 사랑의 지경을 더 넓혀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누어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곳에서 그날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한창 열변을 토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지혜에 감탄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리가 많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족이기주의를 넘어서, 진정한 ‘하늘가족’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변의 지체들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돌아봅시다. 교육경쟁, 가족이기주의, 자기 가족 중심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중심주의를 넘어, 하늘가족을 품고 더 넓은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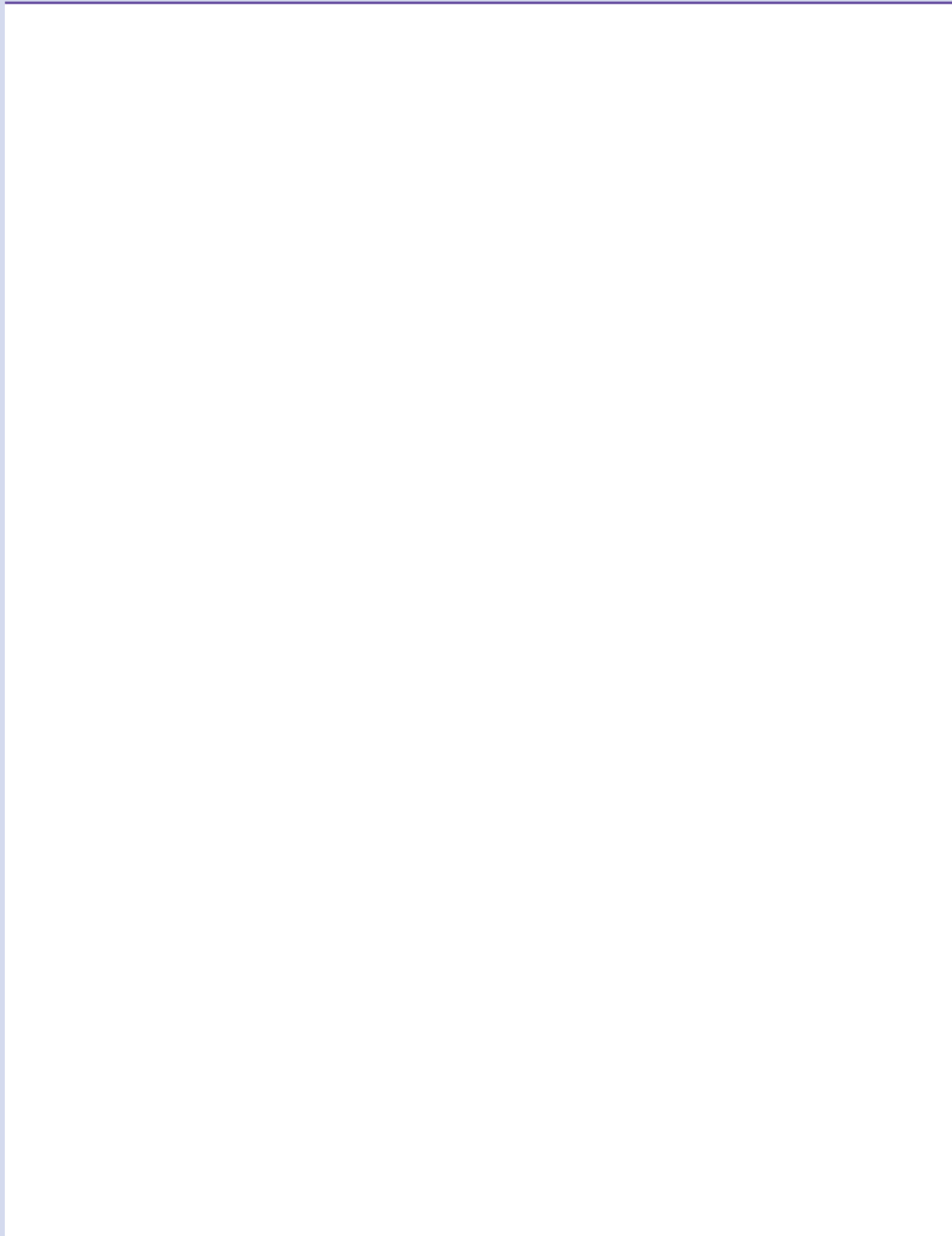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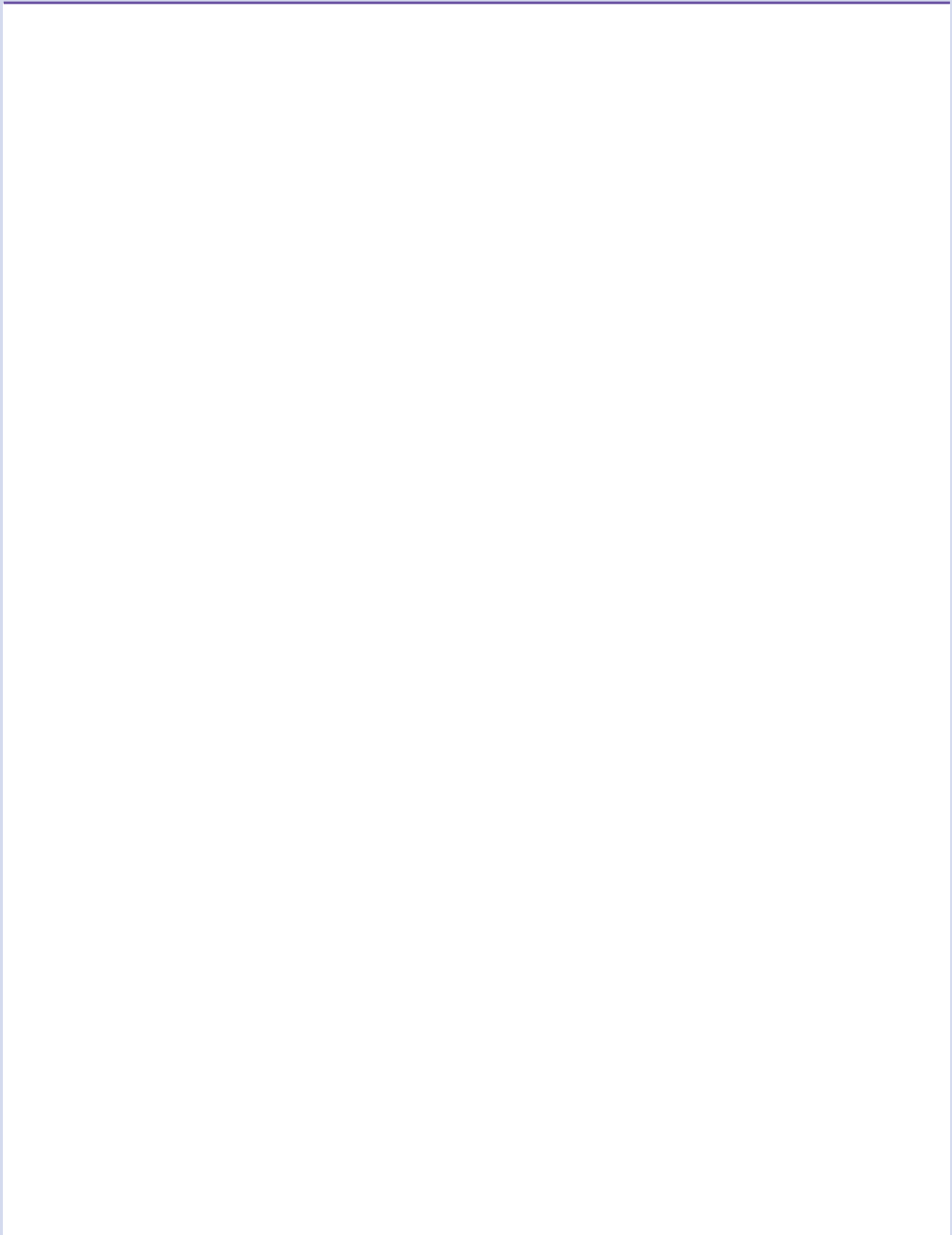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하늘가족’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넓은 사랑의 지경을 허락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7·8·9월

교육부 주요활동

교육부

-

사랑부

성찬식	7.1 (주일)
여름성경학교	7.27 (금) - 29 (주일)
열린주말학교 2학기 개강	9.8 (토)

영유아유치부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7.7 (토) - 8 (주일)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7.14 (토) - 15 (주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21 (토) - 22 (주일)
유니게학교 2단계 개강	9.8 (토)
유니게학교 3단계 개강	9.29 (토)

아동부

축구캠프	8.1 (수) - 4 (토)
The Story Day	9.9 (주일)
통합주말학교 개강	9.29 (토)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27 (금) - 29(주일)
성경찾기대회	9.16 (주일)

초등부

가족초청예배(2)	7.1 (주일)
여름성경학교	7.27 (금) - 29 (주일)
교사수련회	9.7 (금) - 9.8 (토)
성령골든벨	9.23 (주일)
가을소풍	9.30 (주일)

소년부

교사수련회	7.6 (금) - 7 (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7.15 (주일)
교사강습회	7.22 (주일)
여름성경학교	7.27 (금) - 29 (주일)

CEBC

Pajama party	날짜 미정
Ice day	8.5 (주일)
YMS 선교프로그램	9.1 (토) - 10.9 (화)
교사 세미나	9.8 (토)
Sports day	9.16 (주일)

중등부

여름수련회	7.27 (금) - 29 (주일)
아웃리치	8.9 (목) - 14 (화)
특활반 기자단 헌신예배 및 스쿨룩스 데이	9.2 (주일)

뒷장에 계속됩니다 ▶

7·8·9월 교육부 주요활동

고등부

YES 제자훈련	7.7 (토)
여름수련회	7.26 (목) - 7.28 (토)
더가까운예배	7.29 (주일)
YES 비전트립	8.6 (월) - 10 (금)

베드로부

하계 수련회	6.29 (금) - 7.1 (주일)
수능 100일 기도회	8.5 (주일)
학원전도	8.7 (화)

대학부

하계수련회	7.4 (수) - 7 (토)
하기선교봉사	7.12 (목) - 7.16 (월)
하계단기선교	7.20 (금) - 29 (토)
방학 프로그램 세속성자 및 활동	7.29 (주일) - 8.26 (주일)
정기총회	9.16 (주일)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워크샵	7.2 (월) - 8.10 (토)
42차 하기선교봉사	8.12 (주일) - 8.16 (목)
예비리더훈련(LTC) 2학기 개강	9.13 (목)
27차 해외선교	9.21 (금) - 26 (수)
터키, 그리스 비전트립	9.21(금) - 29 (토)
계속리더훈련(LIC) 2학기 개강	9.30 (주일)

교사교육부

교사재교육 타기관 탐방	7-8월 중 실시
교사재교육 타교회 탐방	7-8월 중 실시
신입교사교육 2학기 개강	9.9 (주일)

발행통권 | 18호
발행일 | 2018년 7월 1일
발행인 | 김운성
기획인 | 백성우, 박남진
편집인 | 유태완
디자인 | 한수진
집필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 02-2280-0131
발행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